‘영향’에서 ‘대화’로: 문화상호작용과 글로컬리티*

김수환**

〈차 례〉

1. 글로컬리티의 개념: 글로벌과 로컬의 낯설게 하기
2. 바흐친의 자아 모델: 경계적 실존과 대화
3. 로트만의 ‘기호계’: 혼종성과 비대칭성
4. ‘영향’에서 ‘대화’로: 문화적 대화와 변형의 메커니즘
5. 글로컬리티, 대화적 ‘동의’로서의 다시쓰기

【국문초록】

글로컬리티를 ‘전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간의 편의적 결합으로 이해함으로써 편리한 이데올로기적 구호로서 소비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 개념을 기존에 당연시되어온 글로벌과 로컬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기 위한 수단, 즉 두 개념 모두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제기되는 장소로서 다시 생각해보고자 하는 글이다. 손쉬운 해답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대신 문제설정의 조건과 틀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기위한 방편으로, 개체나 문화의 근본적인 존재와 소통의 방식을 다시 묻는다. 이를 위해 일종의 ‘자

* 이 연구는 200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조교수

아모델’이자 ‘세계모델’로서 “대화”의 개념에 주목하는 바, 이 개념이 자아와 타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기존 모델을 대체하면서 중심적이고 일차적인 것으로서 대두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문화들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기 위한 본질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사유되는 과정을 20세기 러시아의 대표적인 두 사상가인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과 유리 로트만(Yuri Lotman)의 이론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다. 개인의 (주관적) 심리를 한 인격체의 ‘내부’에 가두는 것에 반대하고 그것을 내부와 외부 세계 사이의 ‘경계’ 지대에서 벌어지는 역동적 사건으로 파악했던 바흐친의 논의와 이를 기호학적 전망 속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전유함으로써 기호계 및 문화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이론화했던 로트만의 논의는 글로컬리티 개념의 비판적 전유 작업, 즉 글로벌과 로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자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글로컬리티, 바흐친, 로트만, 대화, 경계, 기호계, 혼종성, 문화상호작용

1. 글로컬리티의 개념: 글로벌과 로컬의 낯설게 하기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 글로컬리티(glocality) 개념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그것을 두 개념의 편의적 결합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글로컬리티가 글로벌과 로컬의 단순 결합으로 이해될 때, 가령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문제점을 로컬로 보완하고 로컬의 한계를 글로벌로 극복한다는 식의 편의적 발상이 생겨난다.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로컬하게 행위하라 Globally think and Locally act” 따위의 구호가 대변하는 이런 편의적 발상의 바탕에 깔린 사고는 글로벌한

것과 로컬한 것이 따로 따로 선재하고, 오늘날 필요한 것은 그 두 관점을 상황에 맞게 취사선택해 결합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글로벌을 콘텍스트로, 로컬을 텍스트로 보는 견해 또한 마찬가지다. 거기서 글로컬리티의 과제는 글로벌을 배경으로 한 로컬의 콘텐츠화로 수렴된다).

글로컬리티라는 합성어는 전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편의적인 결합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불가피한 상호조건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그것의 핵심은 둘 사이의 본질적인 연계와 상호성 자체에 있지, 상황에 따른 배합에 있지 않은 것이다. 글로컬리티의 개념을 기존의 글로벌과 로컬 개념의 적당한 결합쯤으로 편리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손쉽게 글로벌과 로컬의 기존 욕망에 포획되기 마련이다. 가령, 글로벌 자본의 전략을 통해 로컬의 독자성이 글로벌화의 용이한 알리바이로 작동하는 경우(코카콜라 회사의 슬로건인 “우리는 다국적(multinational)이 아니라 다지역적이다(multilocal)”를 보라)나, 혹은 반대로 (중심-주변의 위계적 패러다임에 의해) 굴곡진 로컬의 자의식이 기존의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더 큰 단위(글로벌)의 인정을 욕망하는 경우, 글로컬리티의 개념은 효과적인 구호로서 ‘소비’되곤 한다. 이럴 경우, 글로벌과 로컬의 개념은 물리적인 지리학이나 영토에 따른 구분이라는 기존의 함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로컬(들)의 ‘단독적 보편성’이나 ‘글로벌한 소수성’과 같은 생산적 범주들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결국, 관건은 글로컬리티의 개념에 대한 훨씬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이해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듯한 구호로서 소비되지 않는 길, 해당 개념에 담긴 비판적 잠재력이 생산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방도는 없는 것일까. 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글로컬리티의 개념을 ‘덧셈’이 아닌 ‘뺄셈’의 차원에서 접근해보는 것은 어떨까. 즉 글로벌과 로컬에 관한 기존 개념을 결합하기 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당연시되어온 글로벌과 로컬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기(즉, 비워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글로컬리티의 개념에 접근해보는 것이다. 글로벌과 로컬의 합산을 일컫는 이름이 아니라 그 둘 모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는 장소, 그 물음의 발원지로서의 글로컬리티.

글로컬리티를 통해 로컬과 글로벌 양자를 '낯설게 만드는' 이 길은, 물론 문화적 정체성을 둘러싼 수많은 새로운 질문들을 동반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그 작업은 손쉬운 해답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대신에 문제설정의 조건과 틀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는 근본적인 것이 돼야 할 것이다. 가령, 그것은 '하나의 개체나 문화가 존재하는 근본 형식은 무엇인지', 나아가 '하나의 개체(문화)가 또 다른 개체(문화)와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물음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본질적 차원의 물음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어지는 짧은 글에서 주목하려 하는 것은 일종의 '자아모델'이자 '세계모델'로서의 "대화"의 개념이다. 나는 특별한 종류의 상호작용을 일컫는 대화라는 개념이 자아와 타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기존 모델을 대체하면서 중심적이고 일차적인 것으로서 대두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문화들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기 위한 본질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사유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 고찰의 중심 대상은 20세기 러시아의 대표적인 두 사상가인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과 유리 로트만(Yuri Lotman)의 이론으로, 두 사람이 제시했던 몇몇 주요 개념들(대화, 경계, 내적 발화, 기호계, 번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오늘날의 변화된 문화적 상황에 비춰 재해석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서로 대립하는 두 항이 기존의 방식대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출발점이 되는 존재론적 조건이자 창조적 변용의 잠재적 가능성을 뜻하는 '대화'

의 개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런 시도가 앞서 지적한 로컬리티 개념의 비판적 전유작업, 즉 글로벌과 로컬의 관계를 사유하는 '새로운' 상상을 자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바흐친의 자아 모델: 경계적 실존과 대화

대화의 개념은 흔히 바흐친의 문학론, 특히 소설론의 맥락에서 논의되곤 한다. 주지하다시피, 바흐친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다성악적인(polyphony)' 작품으로 간주했고, 그것을 대화주의의 모범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사실 바흐친의 초기 단계, 그러니까 언어가 주요 요소로 등장하는 체계적인 세계관('메타언어학')이 수립되고 그것이 소설적 세계모델('다성악적 대화주의')로 확장되기 훨씬 이전부터, 바흐친의 집중적인 관심은 다름 아닌 '자아 모델'의 문제로 향해 있었다.

자아의 모델에 관한 바흐친적 이해의 가장 큰 특징은 상식적인 '자기 폐쇄적 모델', 즉 영혼의 선장으로서의 자아라는 개인 모델에 대한 거부이다. 바흐친은 개인의 (주관적) 심리를 한 인격체의 '내부'에 가두는 것에 반대하고 그것을 내부와 외부 세계 사이의 '경계' 지대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인 사건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어떤 개인도, 어떤 사회적 존재도 자기 경계 내에 갇혀 있지 않다. "인물들은 주권적인 내부 영토를 지니지 않으며, 전적으로 언제나 경계 위에 있다."[1] 여기서 개인의 심리적 삶을 일종의 경계선의 현상으로 파악하는 바흐친의 비판적 관점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하나의 개체나 문화를 '분명한 경계를 지니는 공간적 총체'로서 상상하는 (전통적인) 사고의 모델이다.

---

1) М. М. Бахтин, *Эстетика словес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М. 1979. с. 276.

> 하지만 문화의 영역을, 경계와 더불어 내부 영토도 가지고 있는 일종의 공간적인 총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문화의 영역에는 내부 영토가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경계를 따라서, 즉 모든 곳의 모든 측면에 걸쳐 뻗어있는 경계를 따라서 분포되어 있다. … 모든 문화적 행위는 본질적으로 경계 위에서 살아 움직인다. 여기에 그 중대함과 의미심장함이 존재한다. 경계에서 분리되면 문화적 행위는 그 토양을 잃게 되어, 공허하고 오만해지며, 퇴화하여 죽게 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문화적 현상의 구체적인 체계성을 말할 수 있게 되는 바, 말하자면 모든 문화적 현상의 자율적 포함, 혹은 포함적 자율성이 바로 그것이다.[2]

바흐친이 보기에, 공간적 총체를 상상하는 사고의 모델이 자아의 개념에 적용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오류는 문제의 해답을 '내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프로이드 심리학에 대한 바흐친의 저항과 비판은 바로 이 지점에 걸려있다. 1920년대에 심리학과 언어학에 관한 공동의 저서를 남긴 바흐친/볼로쉬노프[3]에 따르면, 심리는 결코 한 인격체 '속'에 자리해선 안된다. 나의 뇌는 내 속에 있지만, 나의 심리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 존재의 본질상 주관적 심리는 유기체와 외부 세계 사이의 어떤 곳, 이 두 가지의 현실영역을 가르는 경계선에 위치한다." 바로 이 경계선상에서 유기체와 외부 세계 사이의 특별한 만남이 발생하는 바, 그 만남은 "기호를 통한" 만남이다. 즉 "심리적 경험은 유기체와 외부 환경 사이의 접촉을 기호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4]

---

2) М. М. Бахтин, *Вопросы литературы и эстететики.* М. 1975. с. 25.

3) 1920년대에 볼로쉬노프와 메드베데프의 이름으로 발표된 세 권의 저서(『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프로이트주의』, 『문예학의 형식적 방법』)의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계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 논쟁의 역사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게리솔 모슨/캐릴 에머슨, 『바흐친의 산문학』, 오문석, 차승기, 이진형 옮김, 책세상, 2006, 192-228쪽을 참조.

4) 바흐찐, 볼로쉬노프,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한겨레, 1988. 38쪽.

개인 심리의 이와 같은 경계적 특성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것은 바흐친의 '내적 발화' 개념이다.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을 대신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는 '내적 발화'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실행되는 외적 발화, 곧 우리가 흔히 '의식'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을 뜻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바흐친의 전형적인 로고스중심주의적 입장, 즉 "내면생활의 토대와 골격을 구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말"이라는 관점이다). 문제의 핵심은 내적 발화와 외적 언술 사이에는 프로이드식의 단절,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 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존재론적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기호(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연결된 내적 경험과 외적 경험은 연속적이다. 다시 말해, 의식과 무의식 간의 구별은 두 가지 종류의 실재 사이의 차이가 아니라 의식이라는 동일한 현상의 변이형들이다. 즉 둘 사이의 차이는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 바흐친은 프로이드의 무의식을 통상적인 '공식적' 의식과 구별하여 '비공식적' 의식이라고 바꿔 부른 바,[5] 바로 이 비공식적 의식의 언어가 '내적 발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개인의 내적 심리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이른바 주체나 자아에 관한 서구식 모델의 근본 토대를 의문시하는 급진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개인의 내면과 외적 세계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아의 형성 과정에 관한 일종의 '전도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바흐친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언어 심리학자 비고츠키(Lev Vygotsky)의 독창적인 실험에서 보다 명징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 모델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안에서 밖으로'가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자아에 대한 서구식 관점을 향한 비고츠키와 바흐친의 공통된

---

5) 바흐찐, 볼로쉬노프, 『프로이트주의』, 예문, 1987, 140쪽. 공식적 의식이 프로이트식의 '검열된' 말에 해당한다면 비공식적 의식은 외적인 말로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검열되지 않은 말의 층위에 해당한다.

불만은 '자아란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화된다'는 관념이었다. 이와 정반대의 가정을 시험하고 대안적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비고츠키는 이른바 '자아 중심적egocentric 발화'의 현상을 집중 검토한다. 그는 자아 중심적 발화를 원초적 자폐 상태와 마지못한 사회화 사이의 타협으로 간주하는 피아제의 견해에 맞서,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는데, 즉 자아중심적 발화란 처음부터 사회적이고 환경 지향적이었던 발화의 직접적 소산이라는 것이다. 비고츠키의 주장에 따르면, 유아는 내적 사유를 '외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내면화'하는 법을 습득한다. 즉 유아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법을 배운 다음에 비로소 대화를 내적 발화로 내면화하는 것이다. 결국, "사유의 참된 발단 방향은 개인에서 사회로서 아니라 사회에서 개인으로 진행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비고츠키의 결론이다.[6]

자아의 내면을 사고하는 이런 입장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추론은, 물론 개인과 사회의 대립에서 후자의 선차성을 단언하는 '마르크스주의자' 바흐친의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외적인 언어가 사회적으로 선재하고, 그 이후에 내적인 언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내적 언어(사고)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우리는 우선 외부에서 언어를 취해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것이 내부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바흐친을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로 파악하는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이 그런 예이다. 그에 따르

---

6) L. S. Vygotsky, *Thought and Language*, ed. and trans. Eugenia Hanfmann and Gertrude Vakar, Cambridge, Mass., 1962. p. 20.; 러시아본: Л. С. Выготский , *Мышление и речь* , М; Лабиринт, 2001. 내적 언어 혹은 의식의 내부화(internalization) 현상에 관한 바흐친과 비고츠키의 견해에 관해서는, Caryl Emerson, "The Outer Word and Inner Speech: Bakhtin, Vygotsky, and the Internalization of Language," *Critical Inquiry, Vol. 10. No.2.* 1983, pp. 251-257.를 참조하라.

면, 마르크스가 개인적 의식의 밖으로 나가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라는 것을 발견했듯이, 바흐친 또한 개인에서 출발하는 독백적 체계를 대신하는 대안적 모델로서, "복수 체계의 끊임없는 (다성악적) 교통" 그 자체인 '사회'를 파악했던 것이다.[7]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강조할 것은 이런 입장이 개인과 사회라는 애초의 대립항을 반복하는 단순한 '방점'의 이동(개인에서 사회로!)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1920년대 후반에 주요 저작들을 공유했던 동료들이 일종의 '절충적' 방식, 그러니까 대립하는 주요한 두 경향을 찾아내 양극단의 부적합성을 들춰내고 그들 간의 절충 지점을 표기하는 방식을 사용했을 때[8], 바흐친은 분명 그와 같은 패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동료들이 그런 패턴을 통해 개인적인 것을 사회적인 것 안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것 안으로) 흡수시키고자 했을 때, 바흐친은 오히려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구별 자체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었다. 바흐친의 가장 본질적인 사유는 애초에 그런 구별 자체가 잘못 도출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으로 나아갔던 바, 바로 그런 근본적인 재고의 지점, 사유의 방식을 규정하는 '틀' 자체를 향한 의심의 지점에서 도출된 것이 '대화'의 개념이었던 것이다.

개인의 내적 심리를 본질상 '영토 바깥의 사태'와 관계하는 경계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바흐친의 자아모델은, 주지하다시피 이른바 '소설적 존재론'의 영역을 거쳐 철학적 대화론으로 나아갔다.[9]

---

7) 가라타니 고진, 『언어와 비극』, 조영일 옮김, 도서출판 b, 2004, 29-32쪽.

8) 볼로쉬노프 명의의 두 저서인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과 『프로이트주의』는 정확히 이런 패턴을 따른다.

9) "자아와 타자(또는 사회)를 일차적인 대립 관계로 간주하는 한, 그는 아직 프톨레마이오스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겠다. 그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은 대화를 중심적이고도 일차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으며, 자아와 사회의 낡은 대립을 부차적인 추상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게리솔 모

바흐친에게 있어서 '소설'이란 단순한 장르가 아니다. 그것은 (자아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특별한 의미를 조직하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와 발화 방법들 간의 고도로 복잡한 조합이자 대화이다. 가령, 소설의 진정한 스타일이 이질적인 스타일들의 조합인 것처럼, 자아는 내부에 있는 특정한 목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목소리를 조합하는 특정한 방식을 의미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세계를 이질적인 목소리, 이질적 의식들이 충돌하는 '대화적 우주'로서 고찰하려는 바흐친의 시도는 결국 그를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화적 존재론'으로 이끈바 있다.

> 삶이란 곧 대화 속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질문하고, 듣고, 반응하고 동의하는 등등. 인간은 자신의 전 삶을 통해 이러한 대화 속에 참여한다. 눈과 입고 손과 영혼, 정신 그리고 모든 육체와 행위를 통해, 그는 말 속에서 자신의 모든 자아를 탐구하며, 이러한 말은 인간 삶의 대화적 짜임, 즉 세계적인 심포지움 속으로 편입된다.10)

지금껏 살펴본 바흐친의 논의가 시사해주는 중대한 통찰은 물론 하나의 개체나 문화의 '경계적 실존'에 관한 사유이다. 홀로 고립된 채 기능하는 사유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며, 그것은 본질상 자신을 초과하는 더 큰 맥락, 즉 외부(타자)를 필요로 한다(우리는 이를 고립된 체계로서의 로컬과 그를 초과하는 외부 맥락으로서의 글로벌로 바꿔 읽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의미심장한 것은 대화적 존재론을 향한 바흐친의 지향이 이미 확립된 질서 혹은 개념 안에서 그것의 부정과 마주치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바흐친의 관심은 반대로 그런 질서나 개념

슨/캐릴 에머슨,『바흐친의 산문학』, 113쪽.

10) М. М. Бахтин, "К переработке книги О Достоевском," *Эстетика словест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М., 1986. с. 337.

자체를 차후에 성립시키는 원초적인 사태, 즉 구조를 개방시키고 외부(즉 타자)를 개입시키는 최초의 '차이'와 '복수성'을 지적하고 서술하려는 데에 있다. 물론 이런 구조화 이전의 원형적 상황을 '인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런 구조 아닌 구조, 환원적 구조 이전의 본래적 사태의 작동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것이며, 그것을 개념적 언어를 통해 기술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글로컬리티'의 개념을 글로벌과 로컬 개념을 성립시키는 더욱 더 근본적인 원형적 사태로서 규정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사태를 기술하기 위한 적합한 언어와 개념을 발명할 필요가 있다.

3. 로트만의 기호계: 혼종성과 비대칭성

원형적 사태의 개념화 과제와 관련해, 우리의 특별한 흥미를 끄는 것은 바흐친의 대화적 존재론을 독특한 기호학적 전망 속에서 새롭게 전유했던 러시아의 문화기호학자 유리 로트만의 사유이다. 로트만은 이론적 사유의 후반기(1980년대 이후)에 "기호계(семиосфера)"라는 개념을 창안했는데, 흔히 '세미오스피어'로 불리는 이 개념은 여하한 종류의 기호적 행위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장, 즉 일종의 기호 생태계를 뜻한다. 러시아의 생물학자 베르나츠키(V. Vernatsky)가 만든 생물계(biosphere)의 개념에 빗대 창안된 그것은, 상이한 언어와 다양한 기호체계의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그것들의 존재와 기능을 위해 선재하는 기호학적 조건, 한마디로 모든 구체적 기호 작용에 앞서 존재하는 단일하고 총체적인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반드시 지적할 것은 로트만의 이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대화한다는 것이다'라는 바흐친의 명제를 내면화한 결과라는 점이

다. 소통 없는 의식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점에서 나의 자기인식(존재규정)은 오직 너(외부)와의 대화적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바흐친의 명제는 기호계의 개념 안에서 직접적인 반향을 얻는다. 기호계 개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립된 정적 체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그것이 가정하는 공리는 모든 체계는 온전히 작동(기능)하기 위해서 '언제나 이미' 기호계라는 일정한 기호학적 공간 연속체 속에 잠겨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대화적 상황, 그러니까 '기호학적 체계들의 앙상블'은 개별 언어들에 앞서는 '존재론적 조건'이 된다. 여기서의 대화란 물론 이미 확립된 정체성들이 기존의 언어와 코드를 사용해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대화는 주어진 모든 언어와의 관계에서 기호적 선차성을 지닌다. 소통 없는 의식이란 불가능하기에 "대화는 언어에 선행하며 그것을 생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11] 기호학적 조직들의 앙상블, 즉 '기호계'의 존재가 개별 기호 형성물들에 선행하는 그것들의 존재조건이 되는 것처럼, 개별 요소들 간의 '대화적' 관계는 그들을 통한 의미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근거가 된다. 만일 현세계의 기호계가 "위성들의 호출, 시인들의 시, 동물들의 외침까지를 포함하는 광역적인(global) 것"을 의미한다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곧 기호계의 참여자이자 기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영원한 기호학적 상호작용, 즉 '대화'속에 놓여짐을 뜻하는 것이 된다.[12]

로트만의 이와 같은 기호계 개념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문화적 현실, 즉 '전지구화'라 불리는 보편적 상황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로트만에 따르면, "기호계"는 그것을 떠나서는 기호작

---

11) Ю. М. Лотман, "О семиосфере,"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в трех томах. Т. 1.* 1992, с. 19.

12) A. Shukmann, "Semiotics of Culture and the influence of M. M. Bakhtin," *Issues in Slavic Literary and Cultural Theory*, 1989. p. 196.

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모종의 총체적인 공간 연속체인 바, 이와 같은 총체적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고서 그것을 채우고 있는 개별 기호들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13] 요컨대, 개별 기호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기능과 상호 관계는 오직 기호계라는 '총체'의 관점을 통해서만 온전히 파악될 수 있으며, 이때 보다 일차적인 것은 그 메커니즘(건물)을 이루는 개별 부분(벽돌)이 아니라 기호계라 불리는 거대한 체계 자체인 것이다.

이와 같은 로트만의 사고는, 예컨대 전지구적 연계성의 구조가 만들어낸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상응한다. 주지하다시피, 전지구적 네트워크와 상호의존성의 강화로 인해 이제 특정한 지역적 사건은 결코 해당 지역의 한정된 맥락에만 머물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단일세계의 전지구적 지평으로 끌어올려져 글로벌한 맥락 하에서 해석되게 된 것이다.[14] 이를 로트만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자면, "기호계의 단위, 즉 기능하는 메커니즘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개별 언어가 아니라 문화의 전체 기호학적 공간"인 것이다.[15]

하지만 기호계 개념이 전지구화라는 오늘의 현실에 시사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통찰은 그것의 내적 구조가 보여주는 본질적인 특성인 '이질성/혼종성'(heterogeneity)에 있다. 기호계의 내부는 결코 동종의 균질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로트만에 따르면,

---

13) Лотман, *Там же*, c. 17. 로트만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각 조각의 비프스테이크를 붙여서는 송아지를 얻을 수 없지만 송아지를 잘라내면 비프스테이크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호행위를 총합하여 기호 세계를 얻어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세계의 존재는 특정기호행위를 현실로 만들어준다." 앞의 글, c. 13.

14) R. Robertson, "Globalization: Time-Space and Homogeniety-Heterogeneity", *Global Modernities*, edited by Mike Featherstone, Scott Lash and Roland Robertson. Sage Publications, 1995. pp. 25-44.

15) Yuri Lotman, *Universe of The Mind,*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p.125.

“기호학적 공간은 다양한 이질적 언어와 그들 사이의 무수한 경계로 가득 차 있는 바, 그것들은 완벽한 상호번역 가능성으로부터 절대적인 번역불가능성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을 따라 갖가지 방식으로 연관된다.”[16] 다시 말해 기호계의 내적 공간은 (그것을 외부와 분리시키는 일차적 경계 이외에도) “무수한 내적 경계로 절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횡단하며 이동하는 각각의 메시지는 수없이 번역되고 변형되어야만 하며,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은 그에 의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17] 사실 기호계의 개념은 로트만 후기의 핵심을 이루는 이론적 명제인 ‘복수언어주의polyglotism’ 개념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수언어주의란 “최소한의 기능하는 기호학적 구조는 인공적으로 유리된 단 하나의 언어나 혹은 그 언어로 된 텍스트가 아니라 상호간에 번역 불가능한 관계에 놓인 평행하는 언어들의 쌍”이라는 명제이다. 로트만에 따르면, “그 어떤 사유하는 조직체도 단일구조적이고 단일 언어적일 수는 없다. 그것은 반드시 상호 번역이 불가능한 다언어적인 기호학적 조직체들을 포함해야만 한다. 모든 지적 구조의 필수적인 조건은 내적인 기호학적 이종성(異種性)이다.”[18] 복수언어주의가 지배하는 공간, 다언어적 소통의 공간인 기호계 안에서 당연히 부분들 간의 관계는 자동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

16) 앞의 책 p.125.

17) 앞의 책 p.140.

18) 유리 로트만, 『기호계』, 김수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8, 231-232쪽. 여기서 모든 “사유하는 조직체들”의 필수 조건인 내적 구조의 ‘이종성’은 로트만에 의해 “대화적 구조”라는 말로 지칭된다. 로트만의 맥락에서 단일 언어적 구조가 “독백적” 구조에 해당한다면, 이중 언어 혹은 복수 언어적 구조는 “대화적” 구조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독백적인(즉 단일언어적인)’ 조직체는 새로운 전언(사유)을 발생시킬 수 없다. 사유하는 조직체는 원칙상 (최소한의 체계에 있어) 대화적인 (즉, 이중언어적인) 구조를 지녀야만 한다. 이런 결론은 대화적 텍스트의 구조에 관한 바흐친의 근본적인 사유에 얼마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준다.” 앞의 책, 223-224쪽.

니라 매번 기호학적 긴장과 때로는 드라마틱한 성격을 띠는 대립을 전제한다.

흥미로운 것은 기호계의 내적 구조형성 원칙이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개별 요소들을 기호학적 단일체로 강력히 통합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고도의 '개별화'의 방향을 따른다. "문화의 발전과 함께 체계의 전적으로 단순한 3항, 즉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 간의 상호이해의 호응성은 상실된다. 나아가(…) 문화의 전체 메커니즘은 그들 각각의 고유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이는 결국 자연스럽게 교제의 어려움을 수반하게 된다."[19]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수한 (내적) 경계로 이루어진, 이질적 언어들의 소통 및 번역의 장인 기호계는, 전지구화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과정이 그러하듯이, 부분(지역)과 전체(세계) 양쪽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운동의 장이라는 사실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과정이 (새로운) 지역화의 배경이자 자극체가 된다는 지적은 여기서 전적으로 온당하다. 말하자면 그 과정은 통일과 통합을 구축할 뿐 아니라 끊임없는 차이와 분열을 만들어내는 기제인 것이다.

기호계의 이와 같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미지는 분명 전지구화의 과정에 대한 단종론적(單種論的)입장, 즉 그것을 서구화·동질화·근대화로 요약되는 협소하고 평면적인 과정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맞서는 혼종론(混種論)의 대안적 모델로 받아들여질만 하다.[20] 하지만 기호계의 내적인 이질성과 지구화 과정의 복합적인 혼종성이 그것의 내부 공간을 규정하는 실질적인 힘의 질서와 권력의 위계 문제를 무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구화 과정에

---

19) 앞의 책, 250쪽.

20) R. Robertson, *Global Modernities*, p.4. 로버트슨에 따르면, 세계화 문제를 두고 단종론자(homogenizer)와 혼종론자(heterogenizer)들이 대립한다. 전자에 사회학자 기든스를 비롯한 맑시스트, 기능주의자들이 속한다면, 후자에는 사이드, 호미바바, 홀 등이 속한다.

대한 문화론적 시각은 그 과정 속에 엄연히 상존하는 정치적·경제적 불균등의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 중심과 주변의 대립은 (탈중심화된 전지구적 제국 안에서) 극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복잡해졌을 뿐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와 관련해 반드시 지적해야할 기호계 개념의 마지막 특성은 그것의 내부 구조의 "비대칭성asymmetry"[21]이다. 기호계를 구성하는 상이한 언어들은 서로 비대칭적인 바, 그 언어들 간의 상호 번역을 정보의 발생기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것들 사이의 비대칭성이다. 그런데 이런 비대칭성이 무엇보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다름 아닌 기호계의 '중심(centre)'과 '주변(periphery)'에서다. 기호계의 중심과 주변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인 메커니즘에 관한 사유, 이른바 중심-주변 관계에 관한 로트만의 모델은 기호계와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것은 기호계의 개념을 문화적 세계화가 부각시킨 가장 핵심적인 논의의 지점, 즉 문화간 상호작용의 문제로 이끈다.

4. '영향'에서 '대화'로: 문화적 대화와 변형의 메커니즘

로트만의 문화기호학은 이론의 후반기에 이를수록 점점 더 '문화간 상호작용'의 문제에 깊게 천착하게 되었다. 사회적 소통 양식과 매체의 급격한 발전, 특히 '전지구화'로 대변되는 변화된 물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발전의 과정 자체는 그 자체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른바 전지구화의 시대를 맞아 문화연구의 패러다임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전통적인 문화연구의 중심 패러다임이었던 '문화내적' 소통의 문

21) Yuri Lotman, 앞의 책 p.127.

제, 즉 하나의 문화 내부에서 다양한 하부문화(subcultures)가 공존하고 대립하는 문제를 대체하면서 점점 더 절실하게 대두되는 과제는,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고 소통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태와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일이다.

문화적 상호작용의 문제를 바라보는 로트만의 시각은 개인의 심리적 삶을 일종의 '경계선의 현상'으로 파악하는 바흐친의 관점을 기호학적 전망 속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의 '자생적 발전'과 '외적 영향'을 단일한 (역동적) 과정의 상호 교차하는 두 양상으로 파악하는 그의 통찰이다. 문화사의 실제 과정에서 확인되는 바, 문화의 자생적 발전과 외적 영향은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사실 이런 견해는 문화를 일종의 '기호학적 인격semiotic personality'으로 간주하는 로트만의 독특한 이론적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이다. 즉 내적 과정과 외적 과정의 분리불가능한 일체성은 문화의 특징이자 동시에 인격의 특징이기도 한 것이다. 타자와의 대화적 공존 및 소통이 '자아'의 존립에 필수적인 것처럼, 타문화와의 상호작용은 (개별) '문화'의 정체성에 필수적이다. 문화의 상호작용의 문제에 접근하는 로트만의 원칙적 입장에 따르면, "지금껏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이 어떤 텍스트를 향한 다른 텍스트의 영향이 가능해 지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집중"되었다면 그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와는 다른 물음이다. 즉 "낯선 텍스트는 어째서, 그리고 어떤 문화적 상황의 조건 하에서 필수 불가결해지는가?", 다시 말해 "낯선 텍스트는 언제, 그리고 어떤 조건하에서나 자신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는가? 또 다른 나와의 접촉은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내 의식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건이 되는가?"[22]가 그의 관심사인 것이다.

---

22) 유리 로트만, 『기호계』, 김수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8, 278쪽.

결국, 로트만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낯선 텍스트의 영향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가 아니라 어째서 그런 영향은 불가피한지에 관한 질문이다. 만일 이를 문화 간의 소통이 아닌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해 본다면, '각 개인은 어떻게 타인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가'라고 묻는 대신에, '어째서 개인은 타인과 소통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가'라고 물어야만 한다. 문화의 상호작용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이런 원칙적인 차이는, 가령, 소통의 형식적 가능성을 묻는 하버마스(J. Habermas)의 입장('인과적 합리성')과 대화의 존재론적 필연성('존재한다는 것은 곧 대화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흐친의 입장만큼의 거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입장이 단언하는 명제는 "문화의 내적 발전은 외적 텍스트의 항시적인 유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문화의 '외부', 다른 민족이나 문화, 혹은 타 지역의 전통으로부터 도입된 낯선 텍스트를 포함하는 '외부'는 문화에 필수적이다. "문화의 발전은 창조적 의식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교환의 행위이며, 그것은 언제나 타자, 즉 이 행위 수행의 파트너를 전제로 하는"[23] 것이다.

문화의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로트만의 이런 관점은 '영향에서 대화로'라는 말로 가장 잘 요약될 수 있다. 로트만은 "문화적 영향 관계를 지칭하는 '영향'이라는 부정확한 개념을 '대화'라는 용어로

---

23) 로트만, 『기호계』, 288쪽. 텍스트적 양태의 기호학적 특징과 인격적 양태의 기호학적 특징 간의 일정한 대응관계는 결국 의미형성을 위한 '대화적' 조건, 곧 낯선 텍스트들과의 접촉 및 교환의 불가피성에 관한 사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앞서 말한 '기호계'의 논리에 다름 아니다. "어떤 구조적인 텍스트가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기 시작하려면, 반드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편입되어야만 한다. 즉, 그런 상황에서만 하부 구조들 간의 기호학적 교환과 내적번역의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적 의식의 행위는 언제나 커뮤니케이션 행위, 즉 교환행위라는 점이다(…) 창조적 의식은 완전히 고립된 체계, 즉 단일구조적이고 정적인(교환을 위한 내적 여분을 지니지 않은) 체계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앞의 책, 288쪽.

바꿀 것을 주장"하는데, 그에 따르면 "보다 넓은 역사적 조망 안에서 문화의 상호작용은 언제나 대화적이다."[24]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대화로서의 상호작용은 일반적 의미의 문화적 영향 관계와 어떻게 다를까?

대화로서의 상호작용이 지니는 가장 큰 특징은 문화적 소통의 '비대칭성'이다. 문화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대화는 대화 참여자 중 어느 한 쪽(즉, 발신자)이 더 큰 경험의 양을 갖고 다른 쪽(수신자)은 그 경험을 자기화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보의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다. 즉 수신자 측의 '대답'이 능동적인 자극체로 작용했던 본래의 발신자 문화가 아닌, 전혀 다른 제 3의 문화를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화 간 교제의 과정에서 텍스트의 흐름이 자신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는 문화적 대화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여기서 반드시 지적할 것은 문화의 영향관계에 관한 이런 로트만의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종의 역사적 자의식이다. 그것은 이른바 '주변부' 문화의 역사적 조건에 관한 자의식으로, 거기에는 중심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했던, 그리고 이후엔 그 스스로 문화의 발신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드러난다(우리는 이를 후발근대문화의 자의식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최초의 비서구권 주변부 국가라 할 수 있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로트만의 고찰은 한국을 포함한 비서구권 후발근대 국가들의 문화적 상황, 특히 글로컬리티라는 오늘날의 문화적 화두와 공명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러시아 문화의 역사적 조건에 기초해 문화 상호작용의 문제 틀을 새롭게 짜려보려는 로트만의 시도는 다음과 같은 핵심 물음으로 집약

24) Ю. М. Лотман, *История и типология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СПб, 2002, с. 47.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영향력의 수신자는 어떻게 발신자가 보낸 전언을 내면화하여 그 스스로 발신자가 되는가? 주변은 어떻게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형'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문화적 영향관계를 새롭게 모델링하고자 하는 로트만의 시도에서 무엇보다 눈에 띠는 중요한 특징은 문화 상호작용의 양상을 일종의 '문화번역'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번역은 특정한 텍스트가 하나의 맥락에서 다른 맥락으로 전이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때 반드시 동일한 것의 차이, 즉 '새로운' 텍스트가 만들어진다. 특정한 문화 텍스트가 새로운 담론 구조 속에 위치하게 될 때, 본래적 의미의 변형과 전치는 불가피하다. 로트만의 문화 상호작용 모델에 따르면, 다소 일방적인 수용의 단계, 그러니까 낯선 언어의 '습득' 단계 이후에는 반드시 모종의 '결정적' 국면이 도래하는 바, 즉 수용자 측 문화의 기호학적 본성에 따라 낯선 타자의 전통이 근본적인 변형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 결정적 단계에서 종종 '낯선 것'은 완전히 외양으로 바꾸면서 '자기 것'이 된다.

요컨대, 이 모델의 핵심 키워드는 일방적인 이식과 수용이 아닌 변형과 창조이다. '주변'에 해당하는 수용문화 내에서 발생하는 적극적인 재코드화의 창조적 가능성을 강조하는 그의 입장은 분명 문화의 크레올화를 이론화하는 여타의 입장(가령, 탈식민주의)과 궤를 같이한다. 모방으로 시작된 반복은 원본 텍스트의 권위를 분열시키고 차이를 주체화하는 수행적(performative) 잠재력을 갖는다. 모방은 모방이되 창조이며, 수용은 수용이되 저항인 것이다.[25]

---

25) 로트만의 문화이론과 탈식민주의 이론과의 절합 가능성에 관해서는 Andreas Schönle, "The Self, Its Bubbles, and its Illusions," *Lotman and Cultural Studies - Encounters and Extension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6, pp. 195-197 참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창조적 변형의 과정이 낯선 외래 텍스트의 변형 뿐 아니라 수입 문화 자체의 자기-모델링에도 변형을 불러오게 된다는 점이다. 수신자 문화는 자신에게 전달된 외적 텍스트의 이념적 가치를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었던 '전통'을 재발견하게 된다. 외래문화가 수용자 문화의 새로운 맥락 하에서 근본적인 변형을 겪은 후, 수용자 측 문화의 내부에서는 정신적인 독립성을 향한 강력한 지향이 발생하는데, 이때 수용문화의 전통적 유산을 수입 문화의 그것에 앞서는 우수한 것으로서 재확인하는 전략이 동원된다.[26]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순수한 기원을 향한 이론 욕망이 사실상 만들어내게 되는 것은 모종의 '혼합물'이라는 점이다. 정신적 독립의 열망이 만들어낸 '전통적 가치'란 것은 결국 수입된 타자의 텍스트로부터 촉발된 재구성의 산물이며, 바로 그런 의미에서 혼종적 교배의 결과물일 뿐이다.

흔히 이 재구성의 과정은 점령, 오염, 독립 따위의 어휘를 동원한 자극적인 서사를 통해 재현되곤 하지만 사실상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텍스트와 맥락 사이의 갈등, 경합, 조정, 그리고 타협의 역동적 과정이다. 여기서 외적 영향의 일방(향)성과 더불어 포기(/극복)되어야 할 것은 자국 문화의 순수한 기원(전통)에 관한 (신화적) 믿음이다. 즉 두 경우 모두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미 언제나' 낯선 텍스트와 몸을 섞고 있는, 모종의 혼합물인 것이다. '자기 자신의 것'을 향한 문화적 '자의식'의 발현이 그 본질상 내부에서 스스로 발원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래문화의 강한 자극(때로는 '압도적인' 영향)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간 개체의 경우가 그런 것처럼, 문화적

---

26) Ю. М. Лотман, *История и типология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СПб-Искусство, 2002. с. 49.

자의식 또한 외적 타자(의 영향) 없이 홀로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화에 대한 저항의 몸짓이 '진정한' 로컬 문화에 대한 반동적 형태의 재긍정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 또다시 핵심은 전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사이의 역동적이고 상호조건적인 쌍방향의 변증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한편, 문화 번역의 창조성과 혼종성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은 곧 기호계의 '주변'이 지니는 생산적인 역량에 대한 강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로트만의 '주변'은 중심을 대체할 미래의 동력이 생성되는 자리인 바, "기호학적 역동성"의 영역으로서 주변은 "새로운 언어들이 생겨나는 긴장의 지대"다.[27] 주변의 역량, 주변의 유연성과 잠재력은 기호계의 주변이란 사실상 문화적 변경지대 frontier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과 직결돼있다. 모든 문화, 모든 기호계는 반드시 또 다른 기호계와 접촉하고 있기에, 사실상 체계의 주변이란 그것의 한계 영역, 즉 외부(타자)의 항시적인 영향과 침투에 노출되어 있는 경계지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계로서의 주변은 체계의 바깥과 먼저 관계하는 영역, 외부의 새로움을 먼저 접하는 장소, 체계내적이지 않은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경계지대는

> 기호학적 적극성이 최고조에 달한 곳이다. 바로 그 곳에서 다수의 메타포적 번역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 방향으로 펌프질을 하고 있는 변형된 텍스트들이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텍스트가 격렬하게 생성된다(…) 위대한 제국(가령, 로마제국)이 내부의 문화발생 메커니즘을 거의 다 소진했을 때, 다름 아닌 그 경계지대에서 문화적 적극성이 증대하는 경우가 이에 대한 예가 될 수 있다. 로마의 이방인화와 이방인의 로마화가 동시에 일어났던 것, 이는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일방적인 수용의 과정이 아니라

27) Yuri M. Lotman, *Universe of The Mind*, 1990, 134.

약동하는 대화의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28]

이로써 문화의 약동하는 상호작용을 일컫는 '대화'라는 개념에 담긴 해방적 본질이 드러난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란 결코 이미 확립된 정체성들이 기존의 언어와 코드를 사용해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대화는 주어진 모든 언어와의 관계에서 기호적 선차성을 지닌다. 앞서 지적했듯이 소통 없는 의식이란 불가능하며, 이런 점에서 대화는 언어에 선행하며 그것을 생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조건이자 토대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대화란 모든 가능한 정체성과 차이들의 표현이 발생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의문에 부쳐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로트만에게 있어, 대화의 이와 같은 해방적 능력은 이른바 '주변적 경계지대'의 본질적 속성이라 할 의미의 비결정성 및 복수언어주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화 속에서 공유되는 것은 코드나 언어가 아니다. 오직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것만이 공유될 수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잠재적으로) 우리들 각자를 우리 자신과 다른 것으로 만드는 어떤 것, 즉 무언가 '부적당한' 동시에 '공통적인' 어떤 것에 다름 아니다. 대화 속에서 각각의 언어는, 결국 언어 그 자체의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가 될 모종의 잠재성들의 공유 공간에 노출된다. 거기서 소통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메시지의 정확한 전송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언어의 '생성'인 것이다.

문화의 상호작용을 영향이 아닌 대화의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로트만의 관점에서 모든 소통은 곧 이중적·상호적인 교환의 작용, 즉 대화에 해당한다. 바흐친이 말하는 대화적 자아의 모델, 즉 내부와 외부 세계 사이의 경계 지대에서 벌어지는 역동적

28) 로트만, 『기호계』, 330쪽.

사건으로서의 대화는 체계의 주변적 경계 지대에서 발생하는 창조적·해방적 소통을 일컫는 문화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으로 이어졌다. 늘 그렇듯이, 만연한 오염과 종속의 증거를 찾아내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혼성적 개작의 양상을 온전히 포착하고 그것이 갖는 생산적 잠재력을 승인하는 일이다. 문화적 대화의 상호작용성과 문화번역 과정의 창의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로트만의 이론적 프레임은 글로컬리티의 개념의 생산적 전유를 위한 유용한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글로컬리티, 대화적 '동의'로서의 다시쓰기

우리는 지금까지 '대화'의 개념이 (인간 개체를 포함한) 여하한 종류의 조직체의 근본적인 존재 모델로서, 나아가 문화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기 위한 기호학적 메커니즘으로서 전유되는 양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대화의 개념은 자아와 타자, 개인과 사회, 그리고 중심과 주변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대립을 흩어놓은 본질적인 계기이자 그러한 기존의 언어 자체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하는 물음의 장소였다. 그렇다면 대화의 개념을 둘러싼 이런 논의는 글로컬리티 개념의 정초 작업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글로컬리티의 관점에 잠재해 있는 창조적이고 수행적인 참여의 역량이다. 글로컬리티의 지향이 글로벌의 맥락과 로컬의 독자성 사이의 편의적 타협에 그치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의 문제의식은 주어진 조건을 향한 끊임없는 개입과 적극적인 참여의 계기로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화'의 개념은 주체(자아)의 자기정립을 위한 타자성의 본질적 역할을 단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외적 영향에 개입해 그것을 흡수하고 재기술하는 주체의 수행적 역량 또한 강조한다.

여기서 다시금 상기할 것은 바흐친이 주어진 권위적 담론에 대한 단순한 적대감을 성숙의 징표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와는 반대로 그는 '동의'를 참된 대화적 관계로서 간주했다. 어떤 담론에 동의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시험해보았다는 것, 그래서 무조건적 충성의 여지를 제거하고, 그것을 자신의 틀에 편입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권위적인 담론에 대한 단순한 적대감은 그 담론의 지위를 난공불락의 절대적 권위로서 방치해두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어떤 담론이나 권위에 대해 책임을 느끼려면, 그것을 혐오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의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을 시험하고 흡수하여 재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9]

글로컬리티의 개념은 글로벌과 로컬에 대한 '대화적' 동의의 과정, 즉 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수행적 '다시쓰기'로서 접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충족적 자아 개념에서 벗어나 문화들의 경계선 위에 설 수 있는 능력, 즉 타인들과 구별될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구별될 수 있는 열린 대화의 자세일 것이다.

참고문헌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언어와 비극』, 도서출판 b, 2004.
게리솔 모슨/캐릴 에머슨, 오문석, 차승기, 이진형 옮김,『바흐친의

29) 최근 버틀러는 시위 도중 미국국가를 스페인어로 번역해 부른 2006년 캘리포니아의 '불법'거주자집회의 예를 들어 "수행적 정치학"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어떤 거리감이나 틈새"를 여는 이런 번역의 행위가 동반하는 "수행적 모순"이야말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창조의 공간을 열어젖힌다. 주디스 버틀러, 가야트리 스피박,『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주해연 옮김, 산책자, 2008, 59-67쪽.

산문학』, 책세상, 2006.
바흐찐, 볼로쉬노프,『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한겨레, 1988.
바흐찐, 볼로쉬노프,『프로이트주의』, 예문, 1987.
유리 로트만, 김수환 옮김,『기호계』, 문학과지성사, 2008.
주디스 버틀러, 가야트리 스피박, 주해연 옮김,『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산책자, 2008.

Emerson C. “The Outer Word and Inner Speech: Bakhtin, Vygotsky, and the Internalization of Language,” Critical Inquiry, Vol. 10. No.2. 1983.
Lotman Y. Universe of The Mind,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Shukmann A. “Semiotics of Culture and the influence of M. M. Bakhtin,” Issues in Slavic Literary and Cultural Theory, 1989.
Robertson R. “Globalization: Time-Space and Homogeniety-Heterogeneity”, Global Modernities, edited by Mike Featherstone, Scott Lash and Roland Robertson. Sage Publications, 1995.
Schönle A. “The Self, Its Bubbles, and its Illusions,” Lotman and Cultural Studies - Encounters and Extension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6.
Vygotsky L. S. Thought and Language, ed. and trans. Eugenia Hanfmann and Gertrude Vakar, Cambridge, Mass., 1962.

Бахтин М. М. Эстетика словес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М. 1979.
Бахтин М. М. Вопросы литературы и эстететики. М. 1975.
Выготский Л. С. Мышление и речь , М; Лабиринт, 2001.
Лотман Ю. М. “О семиосфере,”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в трех то мах. Т. 1. 1992.
Лотман Ю. М. История и типология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СПб, 2002.

From "Influence" to "Dialogue": Glocality and Cultural Interaction

Kim, Soo-Hw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think the issue of "glocality" through the prism of the concept of "dialogue." The notion of "glocality" tends toward commercial or ideological consumption, just being understood as convenient combination of the two concepts; the global and the local. Avoiding this general tendency, we try to reconsider the concept of "glocality" as a critical moment in which we can rai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essence of "globality" and "locality" that since have been taken for granted beyond any critical reflections. Instead of searching for an easy answer or alternative, we aim at thorough reexamination of the frame itself in which the discourse on glocality is conditioned and constructed. For this purpose in this paper special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concept of dialogue as "self model". We will examine the process that concept of dialogue has come to the fore as a primary and central moment for model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the other, individual and society, replacing existing models, and furthermore appears as an essential mechanism for cultural interactions between various cultures. In the process of this examination also the arguments of the two most prominent Russian thinkers, M. Bakhtin and Yu. Lotman will be used as useful references.

Bakhtin's insight on psychology of a subject as an dynamic event in the "boundary" area of individual's inside and outside and Lotman's notion of "semiosphere" which was a result of semiotic appropriation of the concept of dialogue and his theory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uld be a productive stimulator for the re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glocality.

Key words : Glocality, Bakhtin, Lotman, dialogue, boundary, semiosphere, heterogeneity, cultural interaction

김수환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대학 노어과 조교수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 89
전화번호: 017-407-4828 031-330-4976
전자우편: lotmania@hufs.ac.kr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1일 투고하여
2009년 12월 1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9년 12월 31일 간행함